

# 現代女性の 衣服意識에 관한 調查 研究

— 서울 地域의 洋服 着用者를 中心으로 —

李 熙 明

<目 次>	
I. 序 論	IV. 研究結果의 解析
II. 先行研究	1. 衣服에 對한 意識
III. 研究方法 및 節次	2. 衣服種類와 着用實態
1. 研究道具	3. 衣服購入
2. 調查時期 및 節次	4. 流行(Fashion)
3. 調查對象者 및 範圍	V. 結論 및 提言
4. 資料處理	英文抄錄

## I. 序 論

時代의 變遷과 더불어 衣服은 社會的, 文化的, 意味를 지니면서 衣生活에 민감한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며 美的 價値判斷이나 生活樣式의 變化로 衣服의 役割도 多樣해지고 價値도 變化하고 있다.

第二次 世界大戰(1945年) 以後 西洋文化의 急激한 影響을 받아 活動的인 洋服이 着用되면서 눈부신 發展과 變化를 갖어왔으며 着用範圍도 職場女性, 學生, 兒童은 勿論 一般主婦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着用되고 있으며 衣裳 流行面에 있어서도 國際交流의 頻繁과 交通 通信의 迅速 등으로 全世界가 同一한 붐을 타고 있는 實情에 놓여 있다.

1945年以後 社會心理學의 側面에서의 衣裳研究 即 個個人的 衣裳態度, 選擇, 關心, 價値觀 등에 대한 衣裳行爲 研究가 社會心理學 및 衣裳研究 分野에 重要한 研究課題로 대두되고 있다.<sup>1)</sup> 最近 우리나라에도 衣生活에 많은 發展과 더불어

어 高級 마춤복, 高級 既成服의 出現과 Fashion 이 화제의 對象이 되고 있으며 많은 關心 거리로 化해 가고 있다. 現代女性の 衣服에 關한 意識을 調查하고 그 實態를 把握하여 衣生活의 問題點을 發見하여 解決策을 摸索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衣服에 關한 意識을 1. 衣服의 價値, 2. 衣服種類와 着用實態, 3. 衣服選擇 및 購入方法, 4. 流行 등으로 區分하여 調查研究하고 購入方法에 있어서는 자가재봉, 마춤복, 既成服으로 나누어 肯定的 否定的 理由를 調查하여 그 結果를 解析 考察하고자 한다.

## II. 先行研究

### 1. 衣服의 着用 動機와 社會的 意味

人類가 衣服을 입게된 動機는 裸體에 對한 羞恥感과 異性에게 魅力感을 주므로써 自我滿足하는 社會學的인 面(the theory of modesty), 身體保護를 中心으로 하는 生物學的인 面(the theory of protection), 美的表現과 人間의 權威 및 標識

1) 金光經, 一學年 女大生의 價値觀과 衣裳關心에 對한 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3. p.1

類別의 象徵性(the theory of decoration)을 뜻하는 本能的 動機를 들 수 있다.<sup>2)</sup>

人類는 옛날 地球上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生活環境이 다르고 衣服의 發生動機 역시 民族에 따라 달랐으며 그 機元도 多元的으로 論議되고 있다. 發生初期의 單純했던 衣服은 歷史의 흐름 속에서 그때 그때의 社會性, 時代性, 宗教, 價値觀 등의 變化에 따라 그 時代에 알맞는 服飾의 概念들이 定義되어 왔다.

服飾이란 원래 人體와 衣服과의 有機的 關係에서 成立된다. 즉 사람과 着用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른 造形藝術과 다른點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은 흔히 옷은 “第二의 皮膚다”<sup>3)</sup>라고 말하고 있으며 “옷은 사람이다”<sup>4)</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 表現은 모두 衣服과 사람과의 關係를 한층 더 積極的으로 나타낸 말이다. 사람에게 입혀진 衣服은 이미 物品으로서의 衣服이 아니라 生命 있는 人間體이다.<sup>5)</sup> 18C. 佛蘭西의 L. Buffon(1707~1788)은 “style은 사람 自身이다”<sup>6)</sup> 19C. 獨逸 R.H Lotze(1817~1881)는 “옷은 自己의 擴大이다”<sup>7)</sup> 詩人 H. Hesse(1877)는 “衣服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sup>8)</sup>라고 말하고 있으며 衣服은 保護의 手段이며 自己滿足의 手段이다. 라고 한 箴言들은 모두 옷이 바로 사람임을 뜻하고 있다. 이와같이 衣服은 人間的인 것이며 또한 衣服이 사람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人間을 度外視하고 形式的으로 衣服을 理解하려고 해서 는 안된다.

社會構造가 복잡해짐에 따라 옷의 役割도 多樣해지고 衣服에 대한 興味, 認識, 衣服選擇의

理由, 人間行態에 대한 衣服의 影響 등은 모두 社會, 文化的인 要素에 依存되며 社會心理的 要因의 重要性을 점점 느끼게 되었다.<sup>9)</sup>

Dorothy Dickins는 “음식이 健康維持에 寄與하는 것과 같이 衣服은 社會的 目的에 寄與한다.”<sup>10)</sup>라고 衣服의 社會性을 강조하고 있다.

衣服은 喜怒哀樂의 感情의 表現이 되며 性, 民族, 社會的 身分 등의 差異點을 알 수 있으며 衣服에 따라 行動의 많은 變化를 가져오는 등 매우 重要한 無言의 通信手段으로서의 구실을 한다.<sup>11)</sup> 그리고 衣服은 첫 인상에 큰 影響을 주며 첫 對面에 있어서 人상을 結定하는 실마리의 구실을 하며 普通 外貌로서 사람을 評價하게 된다. 人間 個個人은 그가 입고 있는 衣服에 의해서 그의 人間性, 社會的 身分 등 評價받기 쉬우므로 社會活動의 成敗를 左右하는 要因이 되기도 한다.<sup>12)</sup> 以上과 같이 衣服은 內面이 겉으로 表現되는 것으로 衣服에 대한 現代人의 意識은 대단히 重要하다.

## 2. 流行(Fashion)

流行을 概念的으로 보면 社會現象의 하나로 一定한 社會속에서 어느 一定한 기간내 그 社會의 상당히 範圍가 넓은 사람들이 趣味嗜好, 生活態度, 思考判斷 등에 있어서 모방을 母體로 해서 取하는 尤동적인 同調行動의 樣式이다.<sup>13)</sup> 라고 定義하고 있다. 流行은 服飾界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으며 服飾에 있어서 流行(Fashion)이 차지하는 比重은 대단히 크다.

衣服은 各時代의 社會的인 發達과 經濟, 文化 藝術에 의해 形成된 그 時代의 感覺에 따라 變

2) 金敏子, “就學前兒童의 衣服嗜好와 衣服行動”,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3. p.1.

3) Marilyn J. Horn,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Comp, 1968, p.90.

4) 菅原教造, 服裝文化論, p.3.

5) 張文戶, 服飾美學, 서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5, p.1..

6) 張文戶, 前揭書, p.1.

7) 張文戶, 前揭書, p.1.

8) 金教玉, 洋裁의 基礎와 應用, 女性東亞, 서울: 東亞日報社, 1969, p.15.

9) 金병미, 靑少年의 衣服行態에 關한 研究, 대한 가정학회지, 제13권 3호, 1975, p.32.

10) Ryan, Mary Show,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hart and winston Inc, 1966, p.2.

11) Mary, Kefgen and Phyllis Touchic-Specht, Individuality, New York, KacMillan Comp, 1972, pp. 10~20.

12) 金병미, 靑少年의 衣服行態에 關한 研究, 대한 가정학회지, 제13권 3호, 1975, p.34.

13) 張文戶, 前揭書, p.167.

遷되어가서 어떤 流行의 흐름이 생기게 되며 流行의 흐름이란 그 時代感覺에 맞는 衣裳, 藝術, 言行이 그다음 時代에 가서는 역시 그 다음 時代感覺에 맞도록 서서히 變遷되어가는 것을 意味한다.<sup>14)</sup>

流行을 歷史的으로 살펴보면 西歐에서는 王族들로 부터 만들어져 貴族으로 옮겨져 다시 平民이 차례로 따라서 본 받았다. 그러므로 Fashion이란 上流社會 즉 文化, 藝術, 教育, 政治, 經濟의 中心人物로부터 行해지는 모든 生活樣式, 言行, 禮儀, 衣裳을 뜻하였다.<sup>15)</sup>

J.D. Tarde도 모방이란 폭포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優位者로 부터 劣位者로 흘러간다.<sup>16)</sup>고 말하고 있다.

衣裳에 流行은 다른 要素에서 보다 衣裳의 全體的 실뒀(silhouette)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낄 수 있으며 기장의 變化나 幅의 變化라든지 過去의 型이 어떻게 變化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가 이를 미루어 앞으로의 變化를 예측할 수가 있다.

解放後 西洋의 Silhouette의 變化過程<sup>17)18)19)</sup>은 다음과 같다.

1947年(佛)

Christian Dior의 New look. <사진 1>

本來는 새로운 Mode라는 意味이나 Christian Dior이 發表한 새로운 Silhouette의 呼名으로 쓰여진 말이다. 特徵은 1945年以來 Military look 以後 처음으로 女性的인 부드러운 어깨에 가느허리, 치마幅이 넓은 Flare long skirt로서 이때부터 다시 Corset, brassière가 使用되었다.



<사진 1>

1955年(佛) <사진 2>

Christian Dior의 A line

Christian Dior에 依해 發表된 알파벳의 A型으로 어깨를 좁히고 가슴을 강조하지 않고 waist는

약간 high waist로 하여 차츰 넓게 밑으로 내려온 Silhouette로 活動하기 편하고 輕快한 느낌을 준다. 全盛期의 Dior이 새로운 女性美를 追求하고자 만들어낸 알파벳 line (H line, A line, Y line)中的 하나다.



<사진 2>



<사진 3>

1960年(佛) <사진 3>

Gabrielle Chanel의 Chanel look.

Gabrielle Chanel이 發表한 Cardigan型의 간단한 Suits로 Collar가 없는 Simple한 Neck line, 좁은소매, 짧은 Jacket과 Straight한 skirt이다. sporty하고 elegance한 點이 特徵이다.

1964年 Sheath Silhouette.

Sheath란 칼집 形態란 뜻으로 칼집처럼 옷이 體型線에 꼭 맞는것을 말하며 全體的으로 길고 훌쭉한 Silhouette이다.

Sheath Skirt와 Sheath Dress가 있다.

1966年(英) <사진 4>

Mary Quant의 Mini Skirt.

Minimum. 最少限의 Skirt의 略稱이며 무릎위 20~30cm의 짧은 Skirt로 hip line까지 waist가 내려오고 超 short skirt의 出現은 記錄的인 빠른 速度로 全世界에 流行하였다. 다채로운 양말 무릎위까지 올라간 long boots가 登場 하였다.

1970年 Pants look. <사진 5>

pants는 pantalons의 준말이며 pantalon과 上

14) 劉頌玉, 服飾意匠學, 서울: 修學社, 1975, p.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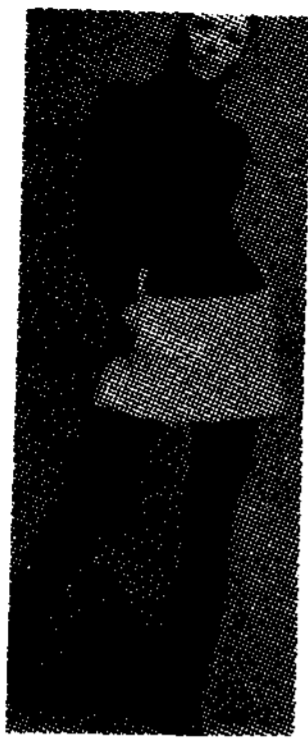
15) 劉頌玉, 前揭書, p. 61.

16) 張文戶, 前揭書, p.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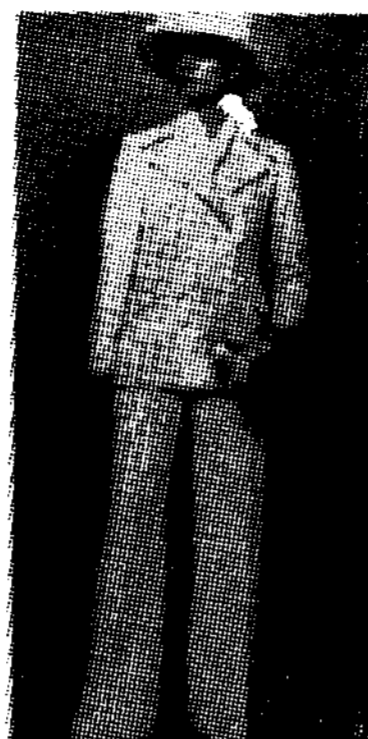
17) 劉頌玉, 前揭書, pp. 64~65.

18) 山口好文, 實用服飾用語辭典, 東京, 文化出版局刊, 1973, pp. 27~211.

19) 衣類織物研究, 歷史的으로 본 Fashion의 흐름,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家政大學, 衣類織物研究 創刊號, pp. 25~28.



<사진 4>



<사진 5>

옷을 結合한 suits이다. pantalons은 day time wear로 着用되며 차츰 formal wear와 evening wear로도 着用된다.

1974年 classic style

復古風의 부드럽고 女性的인 classic style로서 가장은 Midi에서 Maxi사이이며 blousing, pleats, bias cut 등의 活動的이고 부드러운 detail이 特徵이다.



<사진 6>

Ⅲ. 研究方法 및 節次

1. 研究 道具

本 研究에 使用된 調査道具로 質問紙가 使用되었으며 豫備調査用 質問紙에는 10項目의 自由記述型式을 썼고 本 調査用에는 豫備調査에서 얻

어진 內容을 35項目으로 分類作成하여 약간의 短答型和 選多型을 使用하였다.

2. 調査 時期 및 節次

1976年 8月 初旬부터 兩 週間에 걸쳐 K 洋裁 學院生 68名을 對象으로 豫備調査를 實施하였으며 本 調査는 9月初旬부터 9月末까지 國民學校 1學年 자모와 職場女性을 對象으로 實施하였다.

3. 調査 對象者 및 範圍

全國地域을 調査範圍로 잡아 고루 調査함이 바람직하나 調査期間과 資料回數處理上의 난점 때문에 서울을 對象地域으로 定하고 구체적인 調査對象은 社會的, 經濟的, 背景이 높다고 生覺되는 私立國民學校 2個校 낮다고 生覺되는 2個校 그 中間에 位置한 2個校를 選定하였다. 職場對象은 事務職으로 국한시켜 公務員과 金融機關의 行員을 調査對象으로 삼았다.

質問紙는 總 600枚를 配付하여 回收한 568枚中 內容이 不充分한 42枚를 除外한 나머지 526枚만 資料分析에 使用되었다.

對象者의 一般的 背景... 年齡 教育程度 月收入 職業有無는 <表-1>과 같다.

年齡은 31~35세가 36.5%, 20~25세가 36.1%로 集中되어 있고 36~40세는 11.4%로 가장 낮은 比率이다.

教育程度는 高卒이 51.2% 大卒이 40.8%로 集中되어 있었다.

月收入은 應答者의 主觀的인 判斷에 依하였으며 5만원이상 10만원이하 31.9%, 5만원이하

<表-1> 調査對象者의 實態

單位 : %

연령 (만세)	20~25	26~30	31~35	36~40	계	
	36.1	16.0	36.5	11.4	100.0	
교육 정도	국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100.0
	2.2	5.5	51.2	40.8	0.3	
월수입	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15만원 이하	1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20만원 이상	100.0
	25.2	31.9	16.2	16.9	9.8	
직업	유 (직장여성)		무 (가정주부)		100.0	
	30.8		69.2			

25.2%로 全體 應答者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

職場有無는 家庭主婦와 職場女性의 두 Group으로 나누어 調査하였다.

4. 資料 處理

資料는 컴퓨터에 의하여 統計 處理하였으며 問項別로 年齡別, 月收入別, 職業有無別로 分類 集計하여 그中 解析의 價値가 있는것만을 選定하여 百分率(%)과 막대 그림표로 表示하였다.

IV. 研究 結果 및 解析

1. 衣服에 對한 意識

衣服에 對한 意識을 1. 價値, 2. 滿足度, 3. 選擇, 4. 價格에 對한 意識등으로 나누어 調査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衣服의 價値

衣服의 價値는 <表 2-1>과 같이 “개성표현에 있다” 32.7%. “아름다움에 있다” 28.6%로 두 項目은 應答者의 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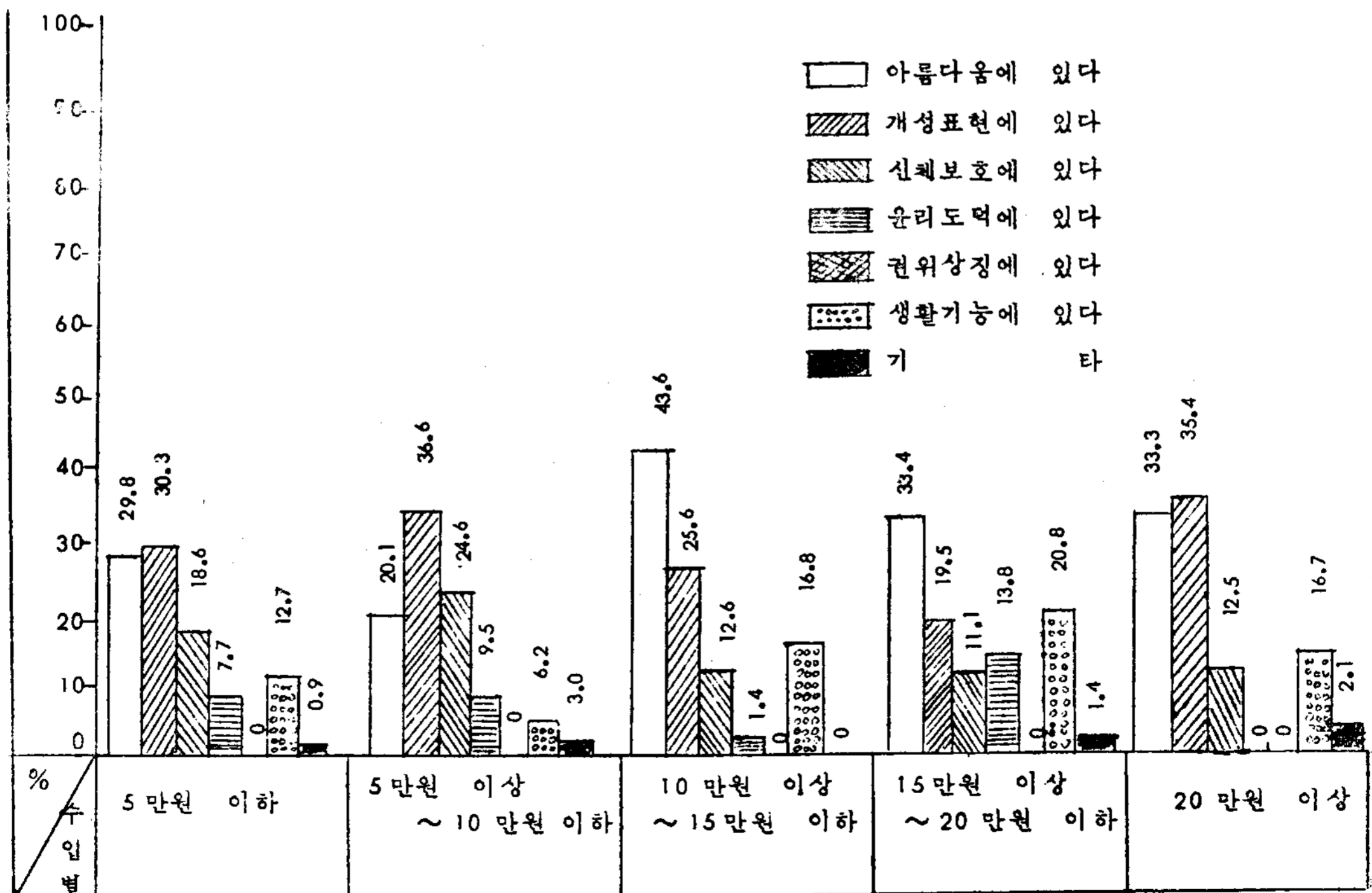
위상징에 있다”는 한 사람의 應答者도 없었다. “신체보호에 있다”와 “생활기능에 있다”는 29.3%로 現代女性의 衣服의 價値는 多元的 學說 보다는 個性表現과 美的인 面에 더 重點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1> 衣服의 價値

單位 : (%)

항 목	N	%
아름다움에 있다	150	28.6
개성표현에 있다	172	32.7
신체보호에 있다	94	17.8
윤리도덕에 있다	40	7.6
권위상징에 있다	0	0
생활기능에 있다	60	11.5
기 타	10	1.8
계	526	100.0

衣服의 價値를 年齡別로 보면 <表 2-2>과 같이 20~25세는 “개성표현에 있다” 36.5% 26~30세, 31~35세는 각각 35.6%, 29.3%로 모두 “아름다움에 있다”에 應答率이 높고 36~40세는 “신체보호에 있다” 39.3% 아름다움에 있다”는 35.8%이다.



<圖 - 1> 月收入別로 본 衣服의 價値

〈表 2-2〉 年齡別로 본 衣服의 價値 單位：%

항 목	연령별(세)			
	20~25	26~30	31~35	36~40
아름다움에 있다	27.3	35.6	29.3	35.8
개성표현에 있다	36.5	31.7	25.4	12.5
신체보호에 있다	13.9	13.9	21.2	39.3
윤리도덕에 있다	3.4	9.9	6.0	7.1
권위상징에 있다	0	0	0	0
생활기능에 있다	18.2	8.9	15.7	5.3
기 타	0.7	0	2.4	0
계	100.0	100.0	100.0	100.0

年齡別로 衣服의 價値에 약간의 差異를 볼 수 있으나 全體적으로 개성표현과 아름다움에 應答者의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개성표현과 美意識이 支配的임을 알 수 있다.

月收入別로 본 衣服의 價値는 〈圖-1〉과 같이 月收入이 높을수록 아름다움에 月收入이 낮을수록 개성표현에 그 價値를 두고 있었다. 이것은 年齡과도 關係가 있는 것으로 年齡이 낮을수록 個性을 살린 옷차림에 더욱 關心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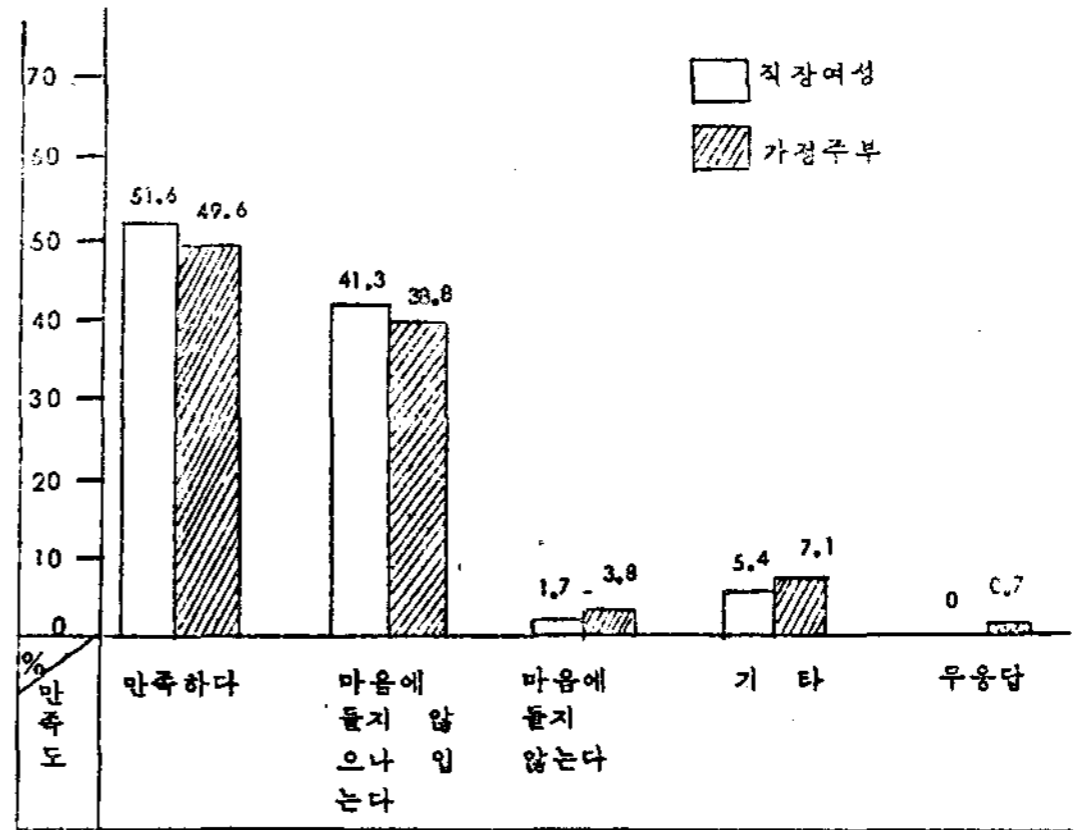
2) 衣服의 滿足度

衣服의 滿足度는 〈表 2-3〉과 같이 “만족하다”에 50.5% “마음에 들지 않으나 입는다” 39.9% “마음에 들지 않는다” 2.5%로 應答者의 半數만이 滿足한 狀態이며 나머지 大部分은 불만스러우나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衣服의 滿足度를 職業有無別로 보면 〈圖-2〉 “만족하다”에 職場女性 51.6%, 家庭主婦 49.6%의 比率이며 “마음에 들지 않으나 입는다”는 職場女性 41.3%, 家庭主婦 38.8%로 衣服은 滿足해야만 입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職場女性의 滿

〈表 2-3〉 衣服의 滿足度 單位：(%)

항 목	N	%
만족하다	266	50.5
마음에 들지 않으나 입는다	210	39.9
마음에 들지 않는다	12	2.5
기 타	36	6.8
무 응 답	2	0.3
계	526	100.0



〈圖-2〉 職業有無別로 본 衣服의 滿足度

足率이 높은 것은 職場關係로 옷 마련을 자주 하는데 있다고 解析된다.

3) 衣服選擇時 가장 重要하게 여기는 點.

〈表 2-4〉에서와 같이 “모양과 옷감의 질을 다 같이 본다”에 75.9%로 가장 높은 比率이며 다른 項目은 모두 낮은 比率로 分布되어 있다.

〈表 2-4〉 衣服選擇時 가장 重要하게 여기는 點 單位：%

항 목	N	%
옷감의 질보다 모양을 본다	16	3.0
모양보다 옷감의 질을 우선 본다	18	3.4
모양과 옷감의 질을 다 같이 본다	39.8	75.9
입고 벗는데 편안함을 본다	26	4.9
바느질이 튼튼한가를 본다	8	1.5
질이 약간 떨어져도 값이 싸면 산다	2	0.3
색상이 마음에 들면 산다	38	7.2
비싸다고 생각되도 마음에 들면 산다	20	3.8
계	526	100.0

4) 衣服選擇時 Design, 材質, 紋樣에 있어 가장 重要하게 여기는 點

衣服 Design이란 線, 型, 色, 材質의 整理이다.<sup>20)</sup>라는 理論에 근거를 두고 그中 Design, 材質, 紋樣만을 擇하여 年齡別, 敎育程度別, 職場有無別로 나누어 가장 重要하게 生覺하는 것을 調查하였다.

Design選擇時 가장 重要하게 여기는 것은 〈表 2-5〉와 같이 “개성미가 있는것” 46.0%, “다용성인것” 31.8% “Sporty한것” 15.4%의 順位이며

20) Mary Kefgen and phyllis Touchic-specht, op. cit., p.210.

<表 2-5> Design 選擇時 가장 重要하게 여기는 點  
單位 : (%)

항 목	N	%
다용성인 것	168	31.8
개성미가 있는 것	242	46.0
유행적인 것	10	1.9
Sporty한 것	80	15.4
Dressy한 것	18	3.4
기 타	8	1.5
계	526	100.0

<表 2-6> 教育程度別로 본 材質選擇時 가장 重要하게 여기는 點  
單位 : (%)

항목	교육정도				
	국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색상이 좋은것	16.6	28.8	34.5	32.0	50.0
문양이 좋은것	0	11.5	1.9	5.4	0
촉감이 좋은것	50.0	15.3	7.0	8.2	0
실용성인것	16.8	40.6	40.2	41.9	50.0
가격이 적당한것	16.6	3.8	15.3	10.5	0
기 타	0	0	1.1	2.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이中 가장 높은 “개성미가 있는것”은 <表 2-1>에서 衣服의 價値가 “개성표현에 있다와 一致된다.

教育程度別로 본 材質選擇時 가장 重要하게 여기는 것은 <表 2-6>와 같이 “실용성인것”, 大學院卒 50.0% 大卒 41.9% 中卒 40.6% 高卒 40.2%의 順位로 높은 率로서 근소한 差異이다. “색상이 좋은것”에 大學院卒 50.0% 高卒 34.5% 大卒 32.0% 中卒 28.8%의 差異로 나타나 있다 材質은 主로 實用性和 色相에 重點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7> 職業有無別로 본 紋樣選擇時 가장 重要하게 여기는 點  
單位 : (%)

항 목	職業유무별	직장여성		
		직장여성	가정주부	비교차
단 색		59.6	44.6	※15.0
커 다 란 무 니		3.2	8.7	5.5
작 은 무 니		21.1	21.5	0.4
기 타		16.1	18.7	2.6
무 응 답		0	6.5	6.5
계		100.0	100.0	100.0

(比較差에서 職場女性이 많은것은 ※로 表示함)

職業有無別로 紋樣選擇時 重要하게 여기는 點은 <表 2-7>과 같이 “단색”에 있어서 職場女性 59.6%, 家庭主婦 44.6%로 높게 나타나 있으며 職場女性이 15.0% 많은 差異를 보여 주고 있다 기타欄에 率이 높은것은 紋樣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잘만 어울리면 어떤 紋樣이든 좋다. 體型의 결함 때문에 남에 눈에 띄는 것이 싫어서 등의 理由를 들고 있다.

6) 衣服의 價格

衣服購入에 있어서 “비싸다” “보통이다” “싸다”의 區分을 자가재봉, 마춤, 기성에 결부시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結果는 <表 2-8>과 같다.

<表 2-8> 衣服의 價格  
單位 : (%)

가격차이	종 류	자가재봉	마 춤	기 성
비 싸 다		3.0	76.8	15.2
보 통 이 다		19.0	19.0	60.6
싸 다		42.3	0.8	14.0
무 응 답		35.7	3.4	10.2
계		100.0	100.0	100.0

자가재봉은 “싸다” 42.3% “마춤”은 “비싸다”에 76.8% 既成服은 “보통이다”에 60.6%로 應答하였다.

2. 衣服 種類와 着用 實態

衣服의 種類는 形態, 用途로 크게 區分할 수 있다. 本 調査에서는 用途만을 生活領域 別로 平常服, 外出服, 作業服, 홈웨어, 運動服, 夜會服으로 나누어 衣服 種類에 따르는 所有하고 있는 衣服의 數, 着用程度, Time, Place, Occasion<sup>21)</sup>에 適合하게 맞추어 區別하여 입는가를 알아 보았다.

1) 種類別로 본 衣服의 所有數

<表 3-1> 평상복과 외출복에 있어서 “3~4벌” 所有하고 있는 率이 各各 40.6%,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다. 反對로 운동복과 야회복에 있어서는 “갖고 있지 않음”과 “1~2벌” 가지고 있는 程度이며 作業복과 홈웨어도 1~2벌 所

21) Designing apparel through the flat pattern, p.219

<表 3-1> 種類別로 본 衣服의 所有數

單位：%

종류	옷의 가지수	0	1~2	3~4	5~6	7~8	9~10	이 상	계
평 상 복		2.2	18.6	40.6	22.4	9.1	4.1	3.0	100.0
외 출 복		2.6	20.9	32.2	24.3	8.3	7.6	4.1	100.0
작 업 복		19.8	56.0	17.8	5.8	0.3	0.3	0	100.0
홈 웨 어		30.7	39.5	23.1	4.5	1.5	0.7	0	100.0
운 동 복		42.9	50.9	4.9	0.7	0.3	0	0.3	100.0
야 회 복		54.5	36.1	7.6	1.5	0	0	0.3	100.0

<表 3-2> 種類別로 본 衣服의 着用程度

單位：%

종류	착용정도	가장 많다	보통 이다	가장 적다	기타	계
평 상 복		46.0	47.3	4.1	2.6	100.0
외 출 복		28.8	55.8	12.1	3.3	100.0
작 업 복		8.3	28.5	35.9	27.3	100.0
홈 웨 어		7.6	26.2	36.8	29.4	100.0
운 동 복		0.7	12.1	54.7	32.5	100.0
야 회 복		1.1	8.7	51.5	38.7	100.0

<表 3-3> 目的에 따라 옷의 種類를 區別하는가의 여부

單位：(%)

항 목	N	%
구별하여 입는다	264	50.3
때에 따라 구별한다	252	47.9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	8	1.5
기 타	2	0.3
계	526	100.0

有하고 있는 程度로 보아 衣服을 種類別로 區別 없이 着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않은 關係로 적당히 맞추어 區別되는 것으로 生 覺된다.

2) 着用 程度

<表 3-2>와 같이 평상복이 “가장 많다”에 46.0% “보통이다”에 47.3%로 나타나 있으며 보통 이상 많이 着用하는 率은 93.3%로 90% 이상을 주로 평상복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출복은 “보통이다”에 55.8%이다. 反對로 작업복과 홈웨어는 “가장 적다”에 각각 35.9%, 36.8%이며 운동복과 야회복은 거의 안입거나 가장 적게 着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衣服 購入

3) 目的에 따라 옷의 種類를 區別하는가의 여부

<表 3-3>과 같이 “구별하여 입는다”가 50.3%이며 “때에 따라 구별한다”는 47.9%로 나타났다.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는 1.5%로 가장 낮았으며 “때에 따라 구별한다”에 47.9%로 높게 나타난 것은 衣服을 種類別로 고루 갖추고 있지

Kefgan의 著書에 經濟的, 價値觀이 높으면 衣服購入時 有用性, 質, 價格 등을 가장 重要視한다.<sup>22)</sup>라고 叙述 하였다. 衣服의 機能面에 重要한 조건은 아름답고 衛生的이어야 하며 活動的이고 經濟的 이어야 한다.<sup>23)</sup> 最近 衣服購入에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는 既成服에 있어 그 重要한 要點을 들면 1. 價格이 적당한가 2. 流行에 맞는 服地를 使用하였는가. 3. Design, 재봉에서 流行感覺을 느낄 수 있는가. 4. 一般大衆 누구에게나 잘맞는 Size를 손쉽게 購入할 수 있는가에 있다.<sup>24)</sup> 既成服 購入에 第一 큰 動機는 값이싸기 때문을 들 수 있는데 低廉한 價格이 購買動機가 되는것은 첫째 消費者가 節約的 競爭心에서 他人보다 低價에 購入하고자 하는 動機와 둘째 經濟的 여유가 없어 값싼 物品을 購入하는 것이라고 한다.<sup>25)</sup>

衣服購入 傾向을 1. 자가재봉, 2. 마춤복,

22) M. Kefgen & P Touchic-Specht, op. cit., p.102.

23) 橋本貴美子, 稱垣和子著, 被服學概論, 建帛社, 1972, pp.55~56.

24) 杉野芽子, 服飾デザイン, 鎌倉書房, 1971, p.143.

25) 吳相洛, 마아케팅原論, 博英社, 서울, 1967, p.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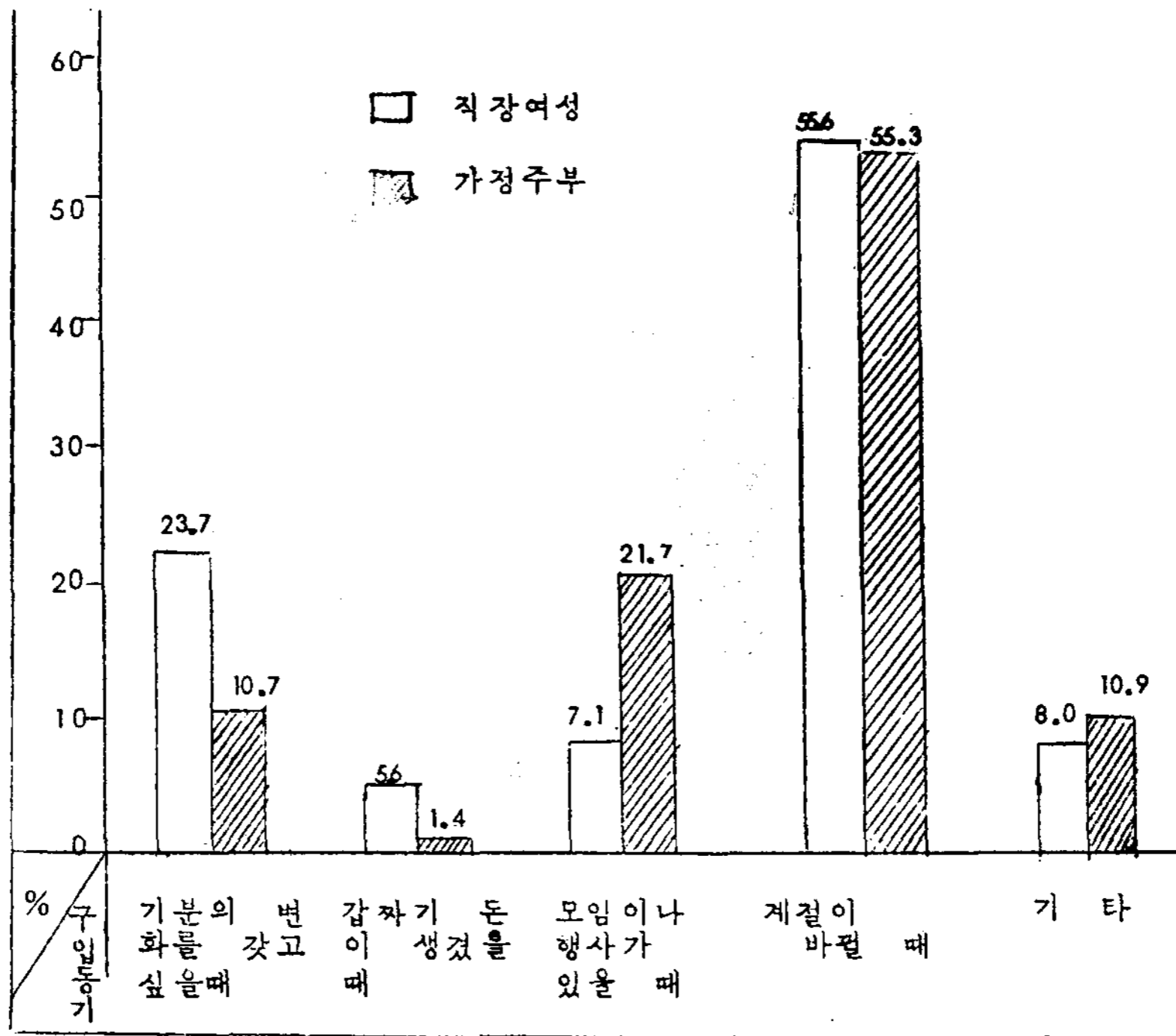


圖 3. 職業有無別로 본 衣服購入 動機

3. 既成服으로 크게 나누어 動機, 方法, 價格, 購入場所 등을 알아보고 그에 對한 肯定的 否定的 理由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衣服 購入 動機

職業有無別로 衣服購入 動機를 보면 <圖-3> “계절이 바뀔 때”가 職場女性 55.6% 家庭主婦 55.3%로 가장 높았다.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職場女性이 7.1%에 家庭主婦가 21.7%로 家庭主婦가 14.6%의 높은 差를 보여 주고 있음은 家庭主婦가 모임이나 행사에 더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기분의 변화를 가지고 싶을 때”는 職場女性이 13.0% 더 높았다.

2) 衣服 購入 場所

職場有無別로 衣服購入 場所를 보면 <表 4-1> 마춤복의 境遇 “집근처”가 職場女性, 家庭主婦 거의 같은 約 40%정도이며 市内 衣裳室은 職場女性이 48.3%, 家庭主婦가 39.5%이고 高級 Salon은 主婦가 6.3% 높았다. 그러나 全體적으로 볼때 高級 Salon 利用은 낮은 率이다. 既成服 購入場所의 境遇는 職場女性이 家庭主婦보다 高루 分布되어 있으며 職場女性은 百貨店 普通 마춤복과 既成服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

<表 4-1> 衣服 購入 場所

單位: %

구입장소	직업유무별		직장 여성	가정 주부	비교차
	직장 여성	가정 주부			
마춤복	집	근처	41.1	41.9	0.8
	고급	싸롱	1.6	7.9	6.3
	시내의 상설 (명동, 종로, 충무로, 이대입구등)		48.3	39.5	※8.8
	기타	타	9.0	10.7	1.7
계			100.0	100.0	
성복	시양백	장품화	15.3	21.5	6.2
	점점	점점	26.6	33.8	7.2
	성복	전문점	34.6	22.6	※12.0
	Sale		10.4	10.7	0.3
	기타	타	0	1.4	1.4
계			13.1	10.0	※3.1
계			100.0	100.0	

(比較差에서 職場女性이 많은것을 ※로 表示함)

購入이 높으며 家庭主婦는 洋品店購入이 높았다 요즈음 유행하는 Sale의 購入率이 낮은것은 質의 低下와 價格의 問題點과 不信에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衣服購入 方法

〈表 4-2〉 衣服購入 方法

單位：(%)

항 목	N	%
집에서 만든다	6	1.1
마추어 입는다	134	25.4
기성복을 산다	46	8.7
마추기도 하고 만들기도 한다	54	10.2
기성복을 사기도하고 만들기도 한다	12	2.2
마추기도 하고 기성복을 사기도 한다	232	44.1
집에서 만들기도 하고 마추기도 사기도 한다	42	8.3
계	526	100.0

으로 〈表 4-2〉 자가재봉의 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자가재봉, 마춤복, 既成服으로 나누어 調査하였다. “마추기도 하고 기성복을 사기도 한다” 44.1%로 가장 높으며 “마추어 입는다.” 25.4% “집에서 만든다” 1.1%로 가장 낮게 나타나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既成服이 多量 生産되어 低廉 하다고 하나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며 質的 問題를 고려하여 자가재봉의 必要性과 적절한 技術指導 및 啓蒙으로 점차 普及되므로 家庭經濟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表 4-3〉 衣服 種類에 따른 購入傾向

單位：(%)

종 류	구입경향				기타	계
	자가재봉	마춤복	기성복	기타		
평 상 복	10.2	15.2	68.4	6.2	100.0	
의 출 복	3.4	84.7	8.3	3.6	100.0	
작 업 복	11.4	9.1	58.9	20.6	100.0	
홈 웨 어	9.5	27.3	38.0	25.2	100.0	
운 동 복	0.7	5.7	58.4	35.2	100.0	
야 회 복	1.9	31.4	19.0	47.7	100.0	

4) 衣服 種類에 따른 購入 傾向

衣服購入 傾向을 衣服種類別로 나누어 實態를 알아본 結果는 〈表 4-3〉과 같다. 자가재봉에 있어서는 평상복과 작업복에 約 10% 程度 만드는 實情으로 매우 저조하며 마춤복의 境遇는 의출복이 84.7% 가장 높은 率이다. 既成服의 境遇는 平常服 68.4%, 作業服 58.9%, 運動服 58.4% 홈웨어 38.0%로 種類別로 고루 分布되어 있다. 外出服을 除外한 나머지 衣服들은 거의 既成服에 依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자가재봉의 肯定的 理由

〈表 4-4〉 자가재봉의 肯定的 理由로는 “경제

〈表 4-4〉 자가재봉의 肯定的 理由

單位：(%)

항 목	N	%
① 내가 원하는대로 디자인 할 수 있다	40	7.6
② 경제적이다	160	30.4
③ 일하는 즐거움이 있다	34	6.4
④ 바느질과 부속품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30	6.0
⑤ 여러벌의 옷을 갖일 수 있다	6	1.1
⑥ 마음에 드는 색과 옷감을 택할 수 있다.	26	4.9
⑦ 자기 치수에 맞는 옷을 만들 수 있다	8	1.5
⑧ 만들지 않아 모른다	186	35.3
기 타	36	6.8
계	526	100.0

적이다” 30.4% “만들지 않아 모른다” 35.3%로 나타났다. “만들지 않아 모른다”는 좋아하는 理由는 아니므로 “경제적이다”가 가장 높은 率로 나타났다. “내가 願하는 Design을 할 수 있다.” 7.6% “일하는 즐거움이 있다” 6.4%로 모두 낮은 率이다. (表 4-2) 購入方法에서 “집에서 만든다”에 1.1%의 낮은 比率에 비해 “경제적이다”에 30.4%의 높은 率로 나타남을 보아 實行 經驗이 있거나 자가재봉이 經濟的이라는 認識은 하고 있다고 본다.

〈表 4-5〉 자가재봉의 否定的 理由

單位：(%)

항 목	N	%
① 좋아 하지만 어렵다	228	43.6
② 생각보다 경제적이지 않다	28	5.3
③ 시간이 걸린다.	44	8.3
④ 힘들여 만들어도 입을 수 없다	70	13.3
⑤ 만드는 것이 귀찮아서 싫다	50	9.5
⑥ 본뜨는 것이 어렵다	26	4.9
⑦ 시대에 뒤떨어진다	6	1.1
기 타	68	12.9
무 응 답	6	1.1
계	526	100.0

6) 자가재봉의 否定的 理由

〈表 4-5〉와 같이 “좋아 하지만 어렵다” 43.6%로 가장 높은 率이며 “힘들여 만들어도 입을 수 없다” 13.3% “만드는 것이 귀찮아서 싫다” 9.5%의 順位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實行 經驗

〈表 4-6〉 마춤복의 肯定的 理由

單位 : (%)

항 목	N	%
① 품위가 있다	38	7.2
② 기성복은 값싸 보인다	8	1.5
③ 체형에 잘맞게 입을 수 있다	220	41.8
④ 색상과 옷감이 마음에 든다	34	6.4
⑤ 개성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	170	32.6
⑥ 바느질이 튼튼하다	36	6.8
기 타	20	3.7
계	526	100.0

이 있고 實行은 願하나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實行의 난점만 除去된다면 앞으로 實行可能性은 있다고 본다.

7) 마춤복의 肯定的 理由

〈表 4-6〉와 같이 ③ “체형에 잘맞게 입을 수 있다” 41.8%로 가장 높고 ⑤ “개성에 맞는 Design을 할 수 있다”는 32.6%이다. ③⑤는 마춤복의 特性으로서 아직 Size, Design 技術面에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는 既成服에 滿足하지 못한 때문이라 본다.

〈表 4-7〉 마춤복의 否定的 理由

單位 : (%)

항 목	N	%
① 값이 비싸다	250	47.5
② 마추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56	10.6
③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	82	15.8
기 타	112	21.2
무 응 답	26	4.9
계	526	100.0

8) 마춤복의 否定的 理由

마춤복의 否定的 理由로는 〈表 4-7〉 “값이 비싸다” 47.5%로 가장 높고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 15.8% 마추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10.6%로 고루 分布되어 있다. 다시 풀이하면 값이 적당하고 技術向上과 最少한 마추는데 소비되는 시간을 단축 시킨다면 마춤복의 壽命은 期待할 수 있다고 본다.

9) 既成服의 肯定的 理由

〈表 4-8〉 ③ “손쉽게 구하여 곧 입을 수 있다”

〈表 4-8〉 既成服의 肯定的 理由

單位 : (%)

항 목	N	%
① 값이 싸다	124	23.5
② 마음에 맞는 디자인을 고를 수 있다	48	9.1
③ 손쉽게 구하여 곧 입을 수 있다	278	53.3
④ 치수에 맞는 크기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26	4.9
⑤ 마음에 맞는 색과 옷감을 고를 수 있다	12	2.2
⑥ 만들줄 모른다	2	0.3
기 타	22	4.1
무 응 답	14	2.6
계	526	100.0

에 53.3%로 가장 높고 ① “값이 싸다” 23.5% ② “마 마음에 맞는 Design을 고를 수 있다”는 9.1%이다. ①②③은 모두 既成服이 지닌 特性들이다. 값이 비싸고 여러가지 節次를 거쳐 얻어지는 마춤복 보다 값이 低廉하고 즉석에서 決定지을 수 있는 既成服에 더 많은 關心을 갖는 것은 當然하다.

〈表 4-9〉 既成服의 否定的 理由

單位 : (%)

항 목	N	%
① 값이 비싸다	10	1.9
② 치수가 맞지 않는다	92	17.4
③ 바느질이 튼튼하지 못하다	152	29.3
④ 색과 옷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28	5.3
⑤ 같은 디자인이 너무 많다	166	31.5
⑥ 빨면 모양이 망가진다	22	4.1
기 타	52	9.8
무 응 답	4	0.7
계	526	100.0

10) 既成服의 否定的 理由

〈表 4-9〉와 같이 最近 붐을 이루고 있는 既成服에 있어 싫어 하는 理由는 ⑤ “같은 Design이 너무 많다” 31.5%로 가장 높고 ③ “바느질이 튼튼하지 못하다”가 29.3%이며 ② “치수가 맞지 않는다” 17.4%의 順位로 나타났다. ②③⑤는 Design, 봉제기술, Size로써 모두 既成服이 지닌 問題點들을 指摘하고 있다. 以上の 여러가지 問題點을 改善하고 科學的 研究의 뒷받침이 있다면 發展途上에 있는 既成服의 展望은 매우 밝다고 본다.

〈表 5-1〉 流行에 대한 關心度

單位 : (%)

항 목	유형에 대한 관심도	많 다	보통이다	적 다	전혀 관심없다	무응답	계
① 사람들의 옷		29.6	48.6	12.9	6.4	2.5	100.0
② 진열장의 유행복		20.9	50.1	18.6	7.6	2.8	100.0
③ TV, 매스콤, 신문, 잡지		19.0	44.1	25.4	9.1	2.4	100.0
④ 의상전문지(국내)		10.2	32.3	31.1	19.3	7.1	100.0
⑤ 의상전문지(국외)		12.1	26.9	32.6	20.5	7.9	100.0

〈表 5-2〉 流行에 대한 肯定的 否定的 理由

單位 : (%)

항 목	N	%	항 목	N	%
① 자기에게 잘 어울린다	106	20.1	①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120	22.8
② 디자이너의 권유	42	7.9	② 개성이 없어 보인다	138	26.2
③ 많은 사람이 입기 때문에	160	30.4	③ 돈이 많이 든다	156	29.6
④ 호기심에서	86	16.3	④ 주위의 만류 때문에	4	0.7
기 타	124	23.5	기 타	76	14.4
무 응 답	8	1.8	무 응 답	32	6.3
계	526	100.0	계	526	100.0

4. 流行(Fashion)

流行은 어떤 社會現象 보다도 服裝에 있어서 가장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다. 最近에는 服裝 뿐만 아니라 機械器具와 生活用具의 Industrial, Design, 建築, 髮型과 化粧, 音樂과 舞蹈, 스포츠 思想과 人生觀, 言語 등 광범위 하게 볼 수 있다.<sup>26)</sup> 服裝에 있어서 流行이 차지하는 役割은 대단히 크다. 流行에 對한 關心의 角度에서 衣生活에 對한 意識을 알아 보았다. 流行에 對한 關心度, 流行에 대한 肯定的 否定的 理由 등으로 區分하여 調査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流行에 對한 關心度

〈表 5-1〉는 流行에 對한 關心도를 나타낸 것으로 流行의 關心이 “普通이다”에 “사람들의 옷” 48.6% “진열장의 유행복” 50.1% “TV, 매스콤, 신문, 잡지”(44.1%) “국내 의상 전문지”(32.3%)이며 “국외 의상전문지”만이 “적다”에 (32.6%)이다. 以上の 結果로 보아 流行에 對한 關心度는 모두 “보통”으로 나타났다. 其中 가장 높은 率은 “진열장의 유행복” 50.1% “사람들의 옷”은 48.6%이다.

2) 流行에 대한 肯定的 否定的 理由

〈表 5-2〉 流行의 肯定的 理由로는 ③ “많은 사람들이 입기 때문에” 30.4%로 가장 높고 ① “자기에게 잘 어울린다”는 20.1%이며 ④ “호기심에서 16.3%로 나타나 있다 ③④는 心理的 作用에 起因된 項目으로 46.7%의 높은 率로 나타났다. ② “Designer의 권유 때문에”는 7.9%의 낮은 比率로 流行을 따르는것은 心理的 作用이 큰것을 알 수 있다. 否定的 理由로는 ③ “돈이 많이 든다” 29.6% ② “개성이 없어 보인다” 26.2% ①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22.8%의 順位로 나타났다. 流行은 經濟性과 個性에 깊이 關係됨을 알 수 있다.

〈表 5-3〉 衣服發展에 流行이 미치는 影響

單位 : (%)

항 목	N	%
미적인 면	318	60.4
활동적인 면	140	26.5
위생적인 면	2	0.3
경제적인 면	38	7.2
기 타	28	5.6
계	526	100.0

26) 張文戶, 前掲書, p.167.

### 3) 衣服 發展에 流行이 미치는 影響

〈表 5-3〉과 같이 衣服發展에 流行이 주는 影響은 어느面에 가장 많은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미적인 면” 60.4% “활동적인 면” 26.5%의 率을 보여 주고 있다. 〈表 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流行이 衣服發展에 미치는 影響도 美에 重點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結論 및 提言

本 研究의 結果에서 밝혀진 事實들은 다음과 같다.

1. 衣服의 價値는 個性表現과 아름다움에 두고 있으며 年齡이 낮고 收入이 낮을수록 個性表現에 그 價値를 두고 있다. 입고 있는 衣服은 거의 (50.5%) 半數만이 滿足한 狀態이며 나머지는 불만스러워도 입는 것으로 (39.9%) 나타나 있으며 衣服은 滿足해야만 입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衣服選擇에서 Design과 옷감의 質을 다 같이 보므로써 (75.9%) 현명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1) Design에서는 個性美(46.0%) 多用性(31.8%)을 重要하게 여기고 있다.

2) 材質選擇에 있어서는 實用性인 것과 色相을 重要視하고 있다.

3) 紋樣選擇에 있어서는 職場女性(59.6%) 家庭主婦(44.6%)로 다 같이 단색을 重要하게 여기고 있다. 現代女性の 衣服의 價値는 個性表現과 美에 重點을 두고 實用性을 참작하고 있다는 結論을 얻었다.

2. 用途別로 所有하고 있는 衣服의 數는 平常服과 外出服을 제외하고는 1-2벌 또는 거의 所有하고 있지 않았다. 着用率이 가장 높은 衣服은 平常服(46.0%)이며 運動服과 夜會服은 着用率이 낮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衣服의 所有數와도 관련 지어진다. 平常服의 着用率이 높은것은 用途別로 衣服의 種類가 區別되어 있지않고 平常服을 兼用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女性들이 生活領域이 좁아 衣服의 種類를 區別하여 着用치 않는데 起因된 것으로 앞으로 점차 着用範圍를 넓혀 用途別로 고루 갖추어 Time, place, Occasion에 맞추어 區別하여 着用함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3. 衣服購入 動機로는 “季節이 바뀔때”(약 50%)로 가장 많이 購入하며 衣服은 半數만이 미리 計劃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즈음 성행하는 Sale의 購入率이(1.4%) 낮은 것은 質의 低下價格의 問題點과 不信에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아 改善되어야 겠으며 購入에 있어서 맞추기도 하고 既成服을 購入하는 境遇(44.1%) 마춤복 購入(25.4%) 집에서 만드는 境遇(1.1%)로 자가재봉이 가장 낮게 나타남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1) 자가재봉은 “좋아하지만 어렵다”(43.6%) “힘들여 만들어도 입을 수 없다”(13.3%)는 모두 技術을 要하는 것으로 實行을 願하지만 技術不足 기타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實行의 要因만 제거된다면 “경제적이다”라는 肯定과 함께 實行可能性은 있다고 본다. 既成服의 多量生産으로 低廉하다고 하나 반드시 그런것 만은 아니므로 質的인 問題를 고려하여 자가재봉의 必要性和 技術指導 및 一般的 啓蒙으로 점차 보급시켜 家庭經濟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마춤복은 “체형에 잘맞게 입을 수 있다.”(41.8%) “개성에 맞는 Design을 할 수 있다.”(32.6%) 모두 마춤복의 特性들이다. 否定的 理由인 “값이 비싸다”(47.5%)와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15.8%)의 技術向上과 맞추는데 소비되는 時間을 短縮시키는데 重點을 두어 마춤복의 特性을 살린다면 앞으로의 壽命은 期待할 수 있다고 본다.

3) 既成服은 “손쉽게 구하여 곧 입을 수 있다”(53.3%) “값이 싸다”(23.5%) “마음에 맞는 Design을 고를 수 있다”(9.1%)는 모두 既成服이 가진 特性들이다. 否定的 理由인 “같은 Design이 너무 많다”(31.5%) “바느질이 튼튼하지 못하다”(29.3%) “치수가 맞지 않는다”(17.4%)는 即 Design, 縫裁技術, Size等 既成服이 지닌 問題點들이다. 그러나 값이 비싸며 여러 節次를 거쳐 얻어지는 마춤복 보다는 값이 低廉하고 즉석에서 結定지을 수 있는 既成服에 더 많은 關心과 期待를 갖고 있었으며 점차 企業化 하는 既成服이 이러한 問題點들을 科學的 研究의 뒷받침으로 改善된다면 發展途上에 있는 既成服의 展望은 밝으며 既成服의 大衆化는 消費者나 國

民經濟를 위해서 매우 重要하다.

4. 流行의 關心은 “진열장의 유행복”(50.1%) “사람들의 옷”(48.6%)에서 볼 수 있으며 流行을 따르는 理由로는 “많은 사람들이 입기 때문에”(30.4%) “자기에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20.1%)이며 否定的 理由로는 “돈이 많이 든다”(29.6%) “개성이 없어 보인다”(26.2%)을 들고 있다. 結果적으로 衣服發展에 流行은 美的인 面과 活動的인 面에 많은 影響을 주면서 流行은 조금씩 따르는 것으로 解析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1. 杉野芽子, 服飾デザイン, 東京; 鎌倉書房, 1971.
2. 被服文化協會, 服飾大百科辭典, 上卷, 東京; 文化出版局, 昭和 46年.
3. 菅原敬造, 服裝文化論.
4. 橋木貴美子. 稱垣和子 著, 被服學概論, 東京; 建帛社, 1972.
5. 山口好文, 實用服飾用語辭典, 東京; 文化出版局刊, 1973.
6. 吳相洛, 마아케팅原論, 서울; 博英社, 1967.
7. 劉頌玉, 服飾意匠學, 서울; 修學社, 1975.
8. 劉頌玉, 西洋服飾史, 서울; 서울大學校 家政大學, 1972.
9. 張文戶, 服飾美學, 서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5.
10. 의류직물학연구,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家政大學 의류직물학회 창간호. 1971.
11. 金教玉, 洋裁의 基礎와 應用, 女性東亞, 서울; 東亞日報社, 1969.
12. Ryan, Mary show,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hart and winston Inc 1966)
13. Mary Kefgen and Phyllis Touchic-specht, Individuality (New York; MacMillan Comp, 1972)
14. G.M. Marton, The Arts of Costume and personal Appearance (New York; John Wilsy and Sons Inc, 1962,
15. Marlyn J. Horn,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 1968)
16. 金光經 “一學年 女大生の 價值觀과 衣裳關心에 對한 研究” 서울; 延世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3
17. 金敏子, “就學前 兒童의 衣服嗜好와 衣服行動” 서울;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3.
18. 김병미, “靑少年의 衣服行動에 關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13호 3권, 1975.
19. 金榮玉, “所得 階層別 學齡期 兒童服의 認識”,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5.
20. 朴英子, “服飾造形에 있어서 外觀性에 對한 研究”, 서울; 誠信女子師範大學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5.
21. 申喜子, “서울女性의 洋服購入에 對한 考察”, 서울;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5.
22. 李仁子, “女大生の 衣服 디자인 嗜好와 興味間의 相關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12호 3,4권, 1974.
23. 李春桂, “都市民의 衣生活 意識에 關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11호 3권, 1973.
24. 林淑子, “衣裳態度와 人性과의 相互關係에 關한 研究”, 韓國科學研究院 論叢 제15집, 1975.
25. 張淑鎮, “女大生の 衣生活에 關한 調查研究”,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4.

### Abstract

Heemyung Lee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plain, at least in part, the contemporary Korean women's consciousness of Western Dresses. As time changes, the role of clothing undergoes various transitions, while values and ways of life are constantly in change. It is, therefore, proper and appropriate to recognize as among the major aspects of social psychology such phenomenon as interests, understanding of clothing, the choice of a dress, and attitudes toward clothing,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problems concerning and their solving and their solutions, by means of a surveying approach.

The method of research used is based upon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parents of first-year pupils in elementary schools and to female clerks working in offices, covering the period from August through October, 1976. The number of the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talled 600, and 526 were returned to the research to be utilized for analysis.

The contents of the survey included such things as values concerning clothing, kinds of clothing and their practical use, the selection of clothing and the method of purchase, fashions, etc. The classification of acquisition are self-made clothing, clothing made to order and ready-made materials. It is composed of 35 items, including affirmative reasons as well as negative ones.

The processing of the material returned was made by using the computer, and based upon classifications such as ages, monthly income, occupations; thus diagramming the result in percentages.

The conclusion made and the improvements proposed are as follows:

1. The values of clothing were placed on the expression of the wearer's personality (32.7%) and on beauty (28.6%). The lower age group places its stress upon the expression of personality, while the higher age group stresses beauty. About 50% of wearers are contented with their clothing, the rest of whom are indicating their dissatisfaction with what they wear. As to designs at the time of selection, about 46% indicated their preference of personal expression, 31.8% on usefulness. In selecting material, practicality is emphasized; in selecting patterns, single color is preferred. In short, personal expression and esthetic values are primary, with consideration of practicality in mind.

2. The classification of clothing according to their uses indicates the highest numbers in normal wear (home wears) and clothings to be worn outside home. As to evening dresses, (party dress) only one or two articles were checked by many, and no such article was claimed to be possessed by most. The highest ratio of wearing was shown in the case of home wear (47.3%) and clothing to be worn outside the home, which is 55.8%. The budget for one article of clothing was greatest in the case of home wear, and clothing worn outside the home. Many used both kinds of articles for the same purpose. It is desirable, therefore, that the kinds of clothing should be varied according to the purpose for which they are worn, and that clothing appropriate for that purpose should be worn.

3. The motivation for purchasing clothing was highly chosen in the item of seasonal change,

which was 55.7%; Clothing deliberately made was indicated by 45.2%. In the methods of purchasing clothing, clothing made to order and ready-made was indicated by 44.4%, which is the highest; Clothing made to order was 25.4%, and self-sewing was 1.1%, which is the lowest.

(1) In the case of self-sewing, "I like it but it is very hard," was checked by 43.6%; "It is so difficult that I cannot wear such clothing" was checked by 13.3%. From these, we can conclude that the questionees are willing to make clothing by themselves, but techniques involved in sewing and other problems involved in the skill are complicated but when those problems are eliminated there is a possibility for practice. The response checked by questionees concerning the self-sewing was, "It's economical", which is a clear indication that many questionees are positive for self-sewing.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ready-made clothing is cheaper, but it is not necessarily so. In consideration of the quality of clothing, self-sewing is a necessity, and it is desirable that it should be encouraged.

(3) Problems involved in ready-made clothing, such as designs, skills, size (fitting) should be eliminated. When these problems are scientifically gotten rid of, it is possible that affirmative returns will be expected. Affirmative responses such as "Ready-made clothing is economical," "You can select there on the spot," are good signs that many women expect to wear ready-made clothing. It is in this sense that the prospect for ready-made clothing is brighter when much development for ready-made clothing is on the way.

4. Much concern for fashion are checked in such item of questions as "Fashionable clothing in the show window," "Clothes worn by women." The first item was checked by 50.1%, and the second was checked by 48.6%. The reason for following fashion is "Because many people wear them," which was indicated by 30.4%. The reason for not following fashion is "It is too expensive," which was checked by 29.6%. The 26.2% of the answers indicated that "Fashionable clothing is devoid of personality," The influences of fashion over the development of fashion over the development of clothing are two-fold: Esthetic and active. It is not to be deniable that people follow fashion more or less. 1978.9>